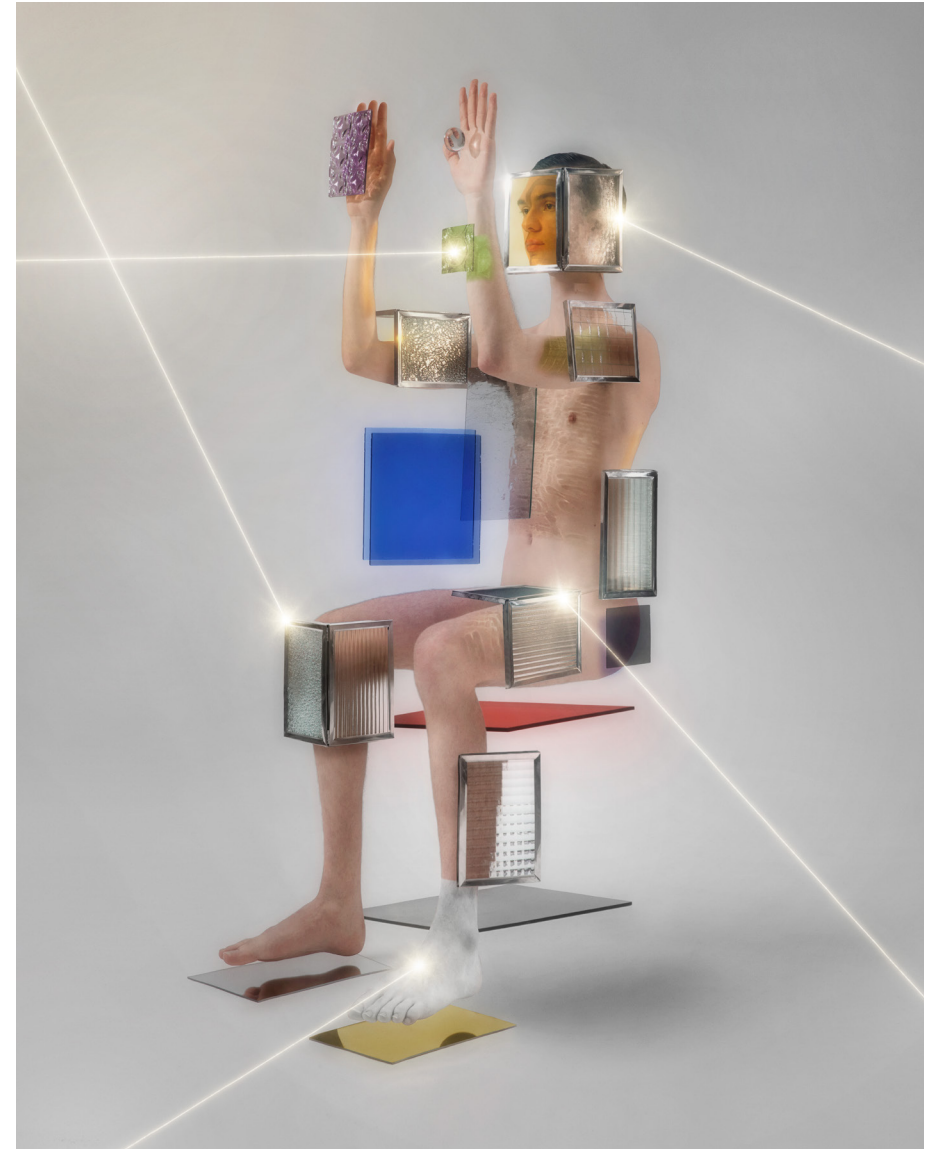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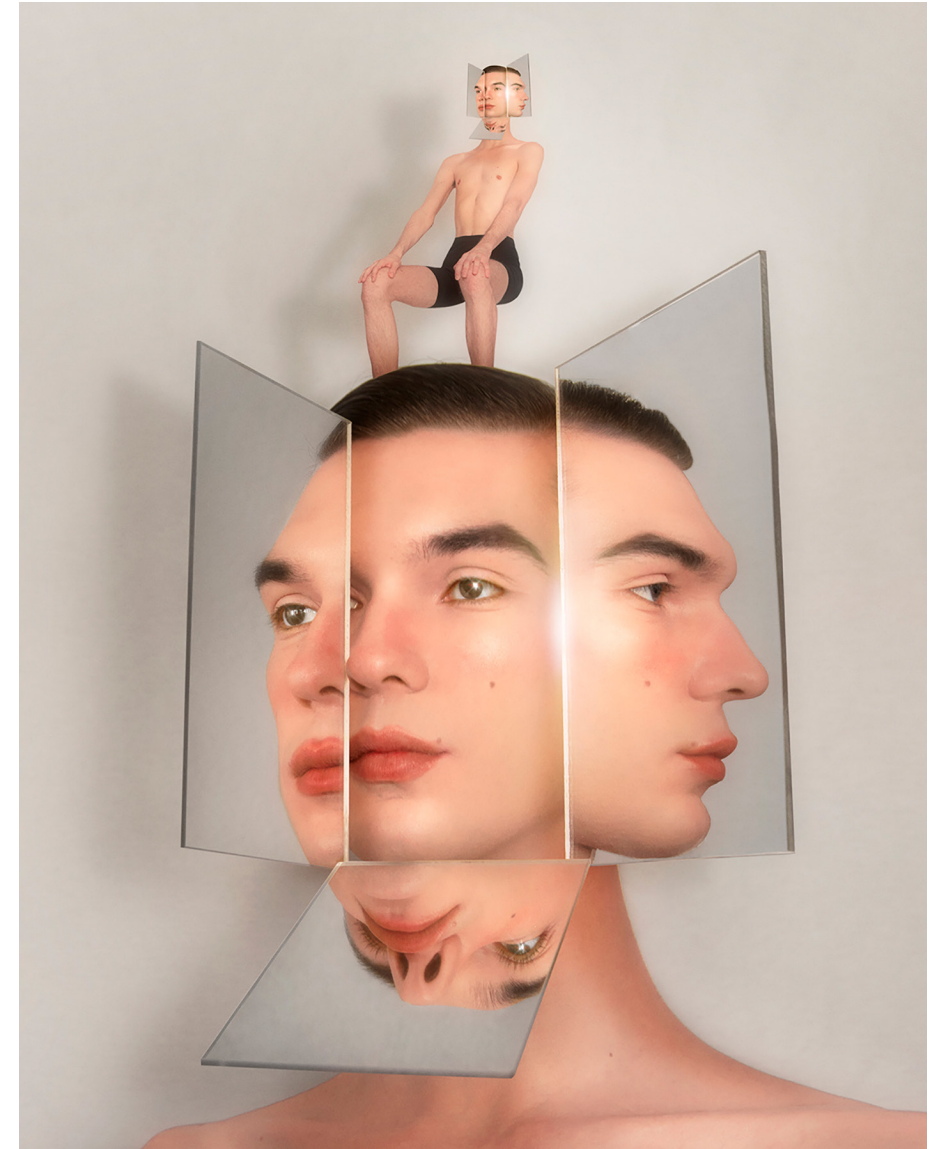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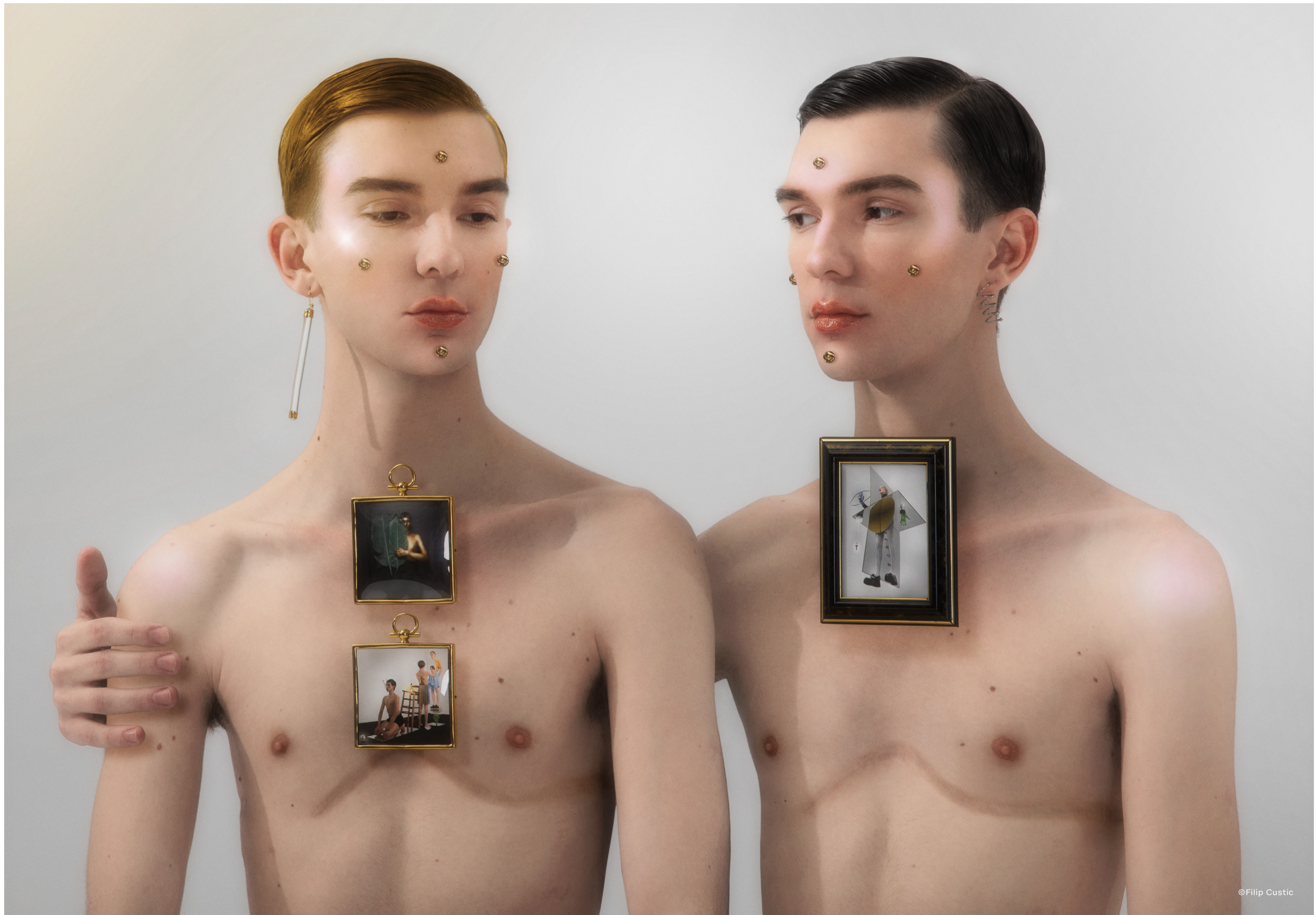


Wearable Body



Filip Custic







스페인의 시각예술가 필립 쿠스틱은 인간의 정체성과 신체를 독특하게 해석하고 표현한 이미지를 선보인다. 그의 작품 안에서 인간은 얼굴과 신체를 자유자재로 변형하거나 자신의 모습을 복제/증식하며, 그 이미지를 스스로 바라보는 존재로 묘사된다. 여기에서 인간은 외모나 몸매, 성별 등이 고정되지 않고, 기술의 변화와 함께 업데이트되는 프로그램처럼 유동적인 형태를 띤다. 작가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 동시대의 기술 환경에서 인간이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고, 그 이미지를 통해 정체성을 인식하는 과정과 방식을 조망한다.

쿠스틱의 그려내는 인간의 존재는 지금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육체가 아니라 미래의 가상현실에서만 가능할 것 같다. 하지만 그 모습을 찬찬히 바라보면, 끊임없이 셀피를 찍어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여러 필터로 거둬 얼굴과 신체를 가공하고 변형하는 데 몰입 중인 우리의 현재와 마주하게 된다. 무한하게 온라인과 SNS에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는 우리의 자기 이미지는 이미 현실의 나와는 또 다른 정체성을 형성한다. 디지털 기술과 모바일 디바이스, SNS 네트워크 등이 연동되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그 이미지들은 현실의 물리적인 제약과 육체의 한계, 성별의 구분에서 자유롭게 벗어난다. ♡

필립 쿠스틱 (Filip Cusic)

1993년 스페인 산타 쿠르스 데 테네리페에서 태어났다. 사진, 퍼포먼스, 조각, 비디오 아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인간의 정체성, 인간과 기술의 관계 등을 탐색하는 작업을 선보이고 있다. filipcusic.com





